

# 늘어나는 무슬림 인구, 발전하는 할랄식품시장

홍콩지사



## 무슬림 거주민과 관광객 숫자 증가

• 2016년의 인구조사통계에 따르면, 홍콩인구 가운데 이슬람교도는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인구의 4.1%에 해당한다. 이 중 5만 명은 중국인, 15만 명은 인도네시아인, 3만 명은 파키스탄인, 나머지는 중동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인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홍콩 거주 무슬림 중 가장 인구수가 많은 인도네시아인 가운데 80% 정도가 주로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 홍콩에 거주하는 30만 명의 무슬림과 더불어 2017년 홍콩을 방문한 무슬림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동 등)의 관광객 수는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할랄시장의 주요 고객이라 볼 수 있다.

##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콩 정부의 노력

• 홍콩정부는 무슬림 국가의 관광객 유치와 할랄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2018년 홍콩 관광청(HKTB)은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 정보사이트인 위고(Wego)와 협력해 홍콩 디즈니랜드와 오션파크에서 'Summer Fun' 행사를 진행했으며, 무슬림 관광객들을 위한 식당을 활성화하며 할랄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할랄 딤섬, 할랄 로스트 덕 등 광동식 요리도 무슬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할랄식당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50만 명 이상의 무슬림이 홍콩을 방문하도록 유도했으며 할랄음식도 인기를 더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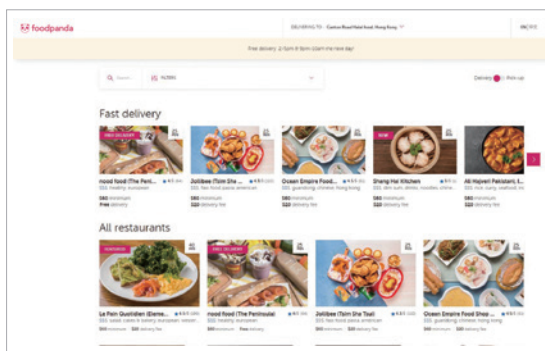
## 할랄시장 점진적 성장세

- 다국적 미디어그룹 톰슨로이터에 의하면 2019년 전 세계 할랄식품시장의 규모는 전체 식품시장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화로 약 3,000조 원의 시장규모를 갖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콩 역시 지난 8년간 할랄식당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0년 14개에 불과했던 할랄음식점이 2018년에는 70개로 늘어난 것이 할랄시장 활성화의 단적이 예라 할 수 있다. 할랄식당 인증은 <Incorporated Trustees of the Islamic Community Fund of Hong Kong>으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받은 후에 발급되며, 할랄인증 식당에서는 인증받은 식재료만 사용한다는 투명성이 확보된 만큼 무슬림 소비자들이 신뢰하며 애용하고 있어 할랄식품 시장이 커지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할랄식품의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유기농식품을 판매하는 그린커먼(Green Common)에서 할랄식재료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할랄식품

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푸드판다(foodpanda)나 딜리버루(deliveroo)와 같은 배달 앱을 통해서도 할랄음식의 주문이 가능하다.

## 건강식품으로 여겨지는 할랄식품

- 홍콩은 현지에서 거주하는 무슬림 뿐만 아니라 관광객으로 잠시 오가는 무슬림의 숫자 또한 만만치 않으며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할랄식품시장의 비중 역시 확대되고 있다. 할랄식품은 전 세계적으로 건강하고 신뢰할 만한 식품으로 여겨져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홍콩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 식품안전에 민감한 홍콩 소비자들 중 할랄식품이 위생적이고 믿을 수 있는 식품으로 여겨 고급 유기농매장 등에서 할랄식품을 함께 판매하는 등 비무슬림 소비자의 할랄식품 구입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며 홍콩에서 지속성장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우리 식품기업들도 할랄메뉴에 적합한 식품재료의 발굴을 통해 이 대열에 합류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할랄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배달 앱 푸드판다

